



# 유성구

## 『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』 환경보전 최우수

유성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훨씬 이전인 2004년 부터 '청정유성'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을 한결 같이 추진해 '청정유성'이란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각인시켜 성장과 환경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.

전국최초 청정유성 기동팀 신설, 인력과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친환경 중심의 청소체계를 갖췄으며 청정유성 봉사단 발족, 내집·내직장 앞 내가먼저 쓸기운동 등 청결한 유성만들기 프로젝트를 범주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도·농 복합도시 유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또,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한 '양심화분', '주민과의 환경대화방', '청결홍보도우미',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한 재떨이 대응의 '뽕초먹는 청정매미' 등 다양하고 기발한 환경시책을 펼쳐왔다.

특히 '청정유성'을 모토로 두발로테이,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등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왔으며 유성천을 비롯한 주요하천 생태하천 복원화 등 21C 녹색성장의 신모델 창출에 나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했다.

그밖에도 Co<sub>2</sub> Zero를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, 탄소포인트제 실시, 공무원 녹색리더 양성을 위한 그린아카데미 운영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시책을 선도해 유성의 대기오염도를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.